



우강 권이혁 전 장관 에세이

서울대병원 6·25 현충탑

서울대병원 서쪽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왼편 언덕 위에 현충탑이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탑이 왜 여기 서 있는지 모르고 지나간다. 그러나 그 사연을 알아보면 참으로 놀랍다. 이 탑은 1999년 현충일에 당시 병원장이던 박용현(朴容峴) 교수가 세웠는데 탑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새겨져 있고 옆에 '이름 모를 자유 전사비 유래'라는 철판 액자가 서 있다.

무명용사 현충탑

1950년 6월 28일
여기에 자유를 사랑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시민이 맨 처음 울부짖은 소리 있었노라.
여기 자유 서울로 들어오는 이 언덕에
붉은 군대들이 침공해 오던 날
이름도 모를 부상병 입원환자, 이들을 지키던 군인·시민투사들이 참혹히 학살되어
마지막 조국을 부른 소리 남겼노라.
그들의 넋을 부를 길이 없으나 길게 빛나고 불멸의 숲 속에 편히 쉬어야 하리.
겨레여, 다시는 이 땅에 그 슬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게 하라.

이름 모를 자유 전사비(自由戰士碑) 유래

1950년 6월 25일 미명, 북괴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공격을 개시, 파죽지세로 남하하여 수도 서울의 최후 방어선인 미아리고개마저 돌파하고 창경궁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은 거의 1천여 명에 달하는 부상 장병들로 응급실·입원실·수술실은 물론, 병원 복도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병원은 남(南) 소위가 지휘하는 국군 1개 경비소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병원 내 의사와 간호사들은 서울 함락이 목전에 임박했음에도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며 피난도 잊은 채 오직 환자치료에만 전념했다. 6월 28일 새벽, 국군 경비소대가 병원 주위를 철통같이 방어하며 완강히 저항하자 북괴군은 1개 대대병력을 투입했다. 경비소대는 이곳 뒷산(당시 이곳은 조그만 동산이었다)에서 인민군 1개 대대를 맞아 결사 항전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소대장 남 소위가 전사하고

선임하사인 민(閔) 하사와 나머지 소대원 전원도 끝까지 사수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이곳 동산이 함락되자 북괴군은 병원에 난입하여 입원한 국군 부상 장병과 일반환자,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여 9백 명 이상을 산 채로 구덩이에 묻거나 불에 태워 죽이고 총을 난사하여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곳이 바로 그 처참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나라를 지키고, 병원을 지키다 그 젊은 나이에 장렬히 산화하신 이름 모를 자유 전사들, 그리고 환자들과 그 가족의 영령 앞에 머리숙여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대학로에 얽힌 이야기

내가 경성제대 의학부 학생시절에는 혜화동 네거리와 종로 5가 사이에 전차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도로변에 있는 의학부 생화학교실 연구기구, 특히 천평(天秤)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취소됐다는 설이 분분했다. 원래 대학로의 너비는 25m였는데 지하철 4호선 공사를 하면서 이화동 네거리에서 혜화동 로터리까지의 구간이 40m로 확장됐다고 한다. 1985년 5월 이 일대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했을 때에는 토요일 오후 6-10시, 일요일 및 공휴일 오후 1시-10시는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기도 했었다. 현재 대학로 옛 서울대자리에는 '마로니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연극·영화·콘서트·뮤지컬 등의 문화예술 단체들이 들어서 있다. 문예진흥원(옛 대학본부) 앞 도로 광장에는 야외공연장과 풍류마당이 있어 각종 야외음악회, 시 낭독회, 연극공연 등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모여든다. 대학로 일대에는 설치예술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별로 신중치 않다는 평이다. 대학로와 얽힌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몇 가지 적어본다.

개(犬) 소동

나는 1947년 의대를 졸업한 후 1년 동안 모교에서 무급 조교생활을 하다가 서울농대 수의학부(이화동 네거리 옛 경의 전 자리)로 자리를 옮겨 '전임강사'로 근무한 일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東雲 권혁용(삼육대학교 명예교수)



11월3일은 학생의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문교부령으로 '학생의 날'로 정해졌다. 이날은 1929년 광주학생사건이 일어난 날로서 당시 학생들의 투쟁정신을 본받는 의미로서 이 날을 택한 것이다. 나의 중·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이날 태극기를 게양하고 각 학교에서 학생의 날 기념식을 가행하며 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생의 날 기념식을 보기 힘들고 학생들에게 이 날에 대하여 질문을 하면 제대로 대답을 하는 학생이 매우 드문 형편이다. 그리고 요즘 발간된 달력에도 어느 달력에는 11월3일에 아무 표시도 없고, 어떤 달력에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쓰여 있다. 3.1운동 이후 1926년 6월10일 순종황제 인산일(장례일)에 서울의 곳곳에서 학생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선언

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군중에게 나눠주는 6.10만세운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3.1운동 때와 달리 일본경찰 및 군대가 삼엄한 경계를 펴 3.1운동 때처럼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광주학생운동의 과정을 살펴보면, 6.10만세운동이 실패한 후에도 전국의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계속하였다.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 광주의 학생들은 성진회, 독서회 등의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일제의 압박이나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자주 벌였다. 이 때문에 1928년에는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 3백여명이 퇴학을 당한 일까지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의 반일감정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었다. 그러므로, 1929년에도 한국인 학생들은 다시 만세운동이나 동맹휴학을 벌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해 10월 말에 광주와 나주 사이의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하는가 하면 못대질을 해 대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 경찰관은 억울하게도 한국인 학생들만 잡았다 처벌했고, 일본인 신문기자는 한국인 학생들만 나쁘게

말하는 엉터리 기사를 써 내기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한국인 학생들은 11월 3일을 계기로 일본인 학생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또 만세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선언문, 태극기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본경찰의 감시가 너무도 심하여 수백명의 학생대표들이 체포되고, 광주학생들의 만세운동은 중단되었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자, 11월 중순부터 목포·나주·서울 등지에서 여러 학교 학생들이 광주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동맹휴학을 벌였고, 이듬해인 1930년 초에는 평양·개성·인천·부산·진주·대구·대전·원산·함흥 등지에서도 동맹휴학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광주에서 시작된 당시의 항일학생운동에는 194개 학교, 5만4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그중 6백여명의 학생은 퇴학, 징역 등의 가혹한 처벌을 당하였다. 이러한 광주학생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학생의 날'이 제정되었고, 광주뿐만 아니라 거족적으로 확대된 항일학생 독립운동을 포함시켜 오늘날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날 아무 행사도 없이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다분하다. 11월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즈음하여 역사적인 광주학생운동을 되새기며 독립정신을 고양하고, 민족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권중달교수, '사론(史論) 강의' 출간

자치통감을 세계 최초로 완역하여 학계에 크게 기여한 권중달 교수가 이번에는 사관(史觀)을 강의하는 역작을 상하 두 권으로 출간하였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역사책을 읽는데, 그 속에 쓰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서술한 것이지만 역사를 쓰는 사람의 사관(史觀)에 의하여 사건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를 읽는 사람이 역사를 쓴 사람의 시각(視角)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지 않으면, 역사가의 사관을 자기도 모르게 좇아 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사관(史觀)의 이해가 중요한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역사전문가가 아니면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하게 설명하는 것은 더 어려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

중을 대상으로 한 역사비평서가 많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업은 역사이론에 해박하여 이 이론을 역사기록에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쉽게 쓸 수 있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자치통감을 완역하였으며, 일찍이 '역사학연구방법론'을 출간하였고, 한국사학사학회회장을 역임하여 이 방면에 전문가인 권중달교수가 이 일을 마무리하였다. 자치통감에는 사마광을 비롯한 35명의 역사가 역사사건에 대한 비평을 가한 것이 108개가 있는데, 이것을 강의형태로 풀어 준 것이다. 그래서 역사이론과 사관을 적용하였지만 쉬운 용어로 설명하여 일반인도 이 책을 읽는 사이에 한 단계 수준 높은 사관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사건과 평론을 한눈에 오도록 하였고, 역사가 권중달교수가 직접 강의하였으며, 간결한 문장과 그림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쉽게 하였다. 때문에 이 책의 출간으로 우리나라의 역사학의 수준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도서출판 심학, 신국판(양장) · 上권 : 656페이지 · 下권 : 688페이지>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빛길을 가다가
雨行
돌아갈 곳 전다계 너무 짙게 일길래
不堪轉興太生濃
새벽같이 길 서두니 새벽종이 따라온다.
晨食催鐘越曉鐘
짧은 밤 여물 먹다 야윈 맑은 지쳤고
短夜載箕滿馬倦
새벽 험로 오르려니 어린 종은 미걱편다.
崇朝躑躅險小僮
무너진 모래 길을 막아 돌아 언덕 오르려니
崩沙擁路還欲岸
소낙이 산을 가려 봉우리도 되지 않네.
急雨潭山不辨峯
고개 둘러 우연히 구름 터진 곳을 보다
回首偶看雲缺處
빛진 해가 어느새 위엿함에 놀라누나.
忽驚斜日已高春

저물녘 돌아오며
暮歸
저녁 해 지고 나자 뭇동물들 잠에 들고
夕日已入群動息
안개 모래 이슬 풀이 거친 들만 아득하다.
煙沙露草迷荒原
어둠 골짜기 울자 밤바람도 매서운데
虎窟陰壑夜風烈
빈숲에서 여우 울어 가을 달도 어둡하다.
狐鳴空林秋月昏
반딧불이 반박반박 귀신불명이 되고
流螢閃閃疑鬼火
늙은 나무 가물가물 산촌이 줄 알겠네.
老樹嗷嗷知山村
하인 너석 뱃물 들고 마중을 오니
家僮出迎把兩炬
가지 사이 참새가 놀라 퍼득 나누나.
枝間寒雀驚飛驚

칼럼

어린이 미소(微笑)



毛村權五福 (본지 편집위원)

미소(微笑), 찬 서리 뿜어내던 분노는 사라지고 영혼의 들끓던 빛살만이 가득하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서 환한 햇살이 희망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다. 그러나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의 해맑은 미소(微笑)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지만 갓난아기의 방긋 웃는 미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빙그레 웃는 미소로, 그리고 노인들의 주름살을 가리는 환한 웃음으로 이어져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이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말이 맞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웃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 웃음이 한순간의 미소가 아니라 온 나라가 영원히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어린이의 해맑은 그런 미소였으면 한다. "미소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한없이 풍요롭게 해 주지만 그렇다고 미소를 주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

가 되며, 팀원들의 미소는 상사의 격려가 된다. 미소는 부부사이에서는 행복의 표시이고, 친구사이에서는 우정의 표시며,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호의의 표시가 된다. 미소는 자칫 사람에게서 편안함 휴식이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환한 햇살이 희망이기도 하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던질 수 있다면, 나아가 우리 모두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루에 한번 이상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사회적 위기에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교양만평



사물을 다른 모양으로 바꿔도 속이기도 않고
잘못 보거나 옳든 아니든 안고 있는 그대로를 정경하는 것
그 자체가 모든 발명의 수완보다 훨씬 고귀한 것이다.

지승룡 (민토 소장)

들국화

권순채
(향토문화연구가)



내 건너 산기슭
풀땀풀속에
노오랗게 피어난
너의 모습이
날이면 날마다
더욱 빛나네
싸늘한 날씨에
단풍이 드는데
너는 노오란 빛 만치나
더 진한 향기를 내 품네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속삭이며
꽃잎들도 어울려 춤을 추네
칠새들이 날아가고 날아오면
가는 계절 아쉬움에
눈물 짓다 말고
티없이 맑게 웃음짓네